

## 성서 번역에서 접속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재현\*

### 1. 들어가면서: 성경 번역과 정보 전달

생각이나 사상 등의 정보는 언어 대화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달된다. 그 과정은 전하는 쪽(화자나 저자)과 받는 쪽(청자나 독자)으로 구성된다. 서로 공유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전하는 쪽이 자신이 의도한 주제를 전달하면 받는 쪽은 전해진 정보를 받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 속에서 전하는 쪽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인식하게끔 돕는다. 예를 들어, 나름의 논리 진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의미전달을 꾀하기도 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독자들이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독특한 구성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는데, 반복이나 대조, 비교, 그리고 강조의 방법 등이 그 예이다.

성경을 읽는 작업 역시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하는 쪽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 성경 각 기자들은 성경을 통한 대화 과정에서 전하는 쪽이 된다. 일반 언어 대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하는 쪽이 되어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잘 이해하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기에 대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 독자들의 일차적 과제는 과거 성경 기자가 전하려는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한 대화 과정은 구두 언어로 진행되는 과정에 비해 적어도 두 가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첫째, 성경 읽기는 대화 과정의 한 방향, 즉 전하는 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독자들이 내용을 받아 소위 적용이라는 것을 행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하는 저자의 입장을 되물어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적용 역시 원 저자를 향한 반응은 아니다. 그렇기에 정보를 받는 쪽인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주제

---

\* 침례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나 의도를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본문 자체의 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단어나 어휘 선택뿐 아니라, 저자 자신이 사상 전달 도우미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구조나 논리 전달 방법 등등의 여러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성경 읽기 과정이 일반 언어 대화 과정과 구별되는 또다른 차원은 언어 환경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정보를 받는 쪽에서는 성경 저자와 동일한 언어 환경에 속하지 않는 한 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정보 전달자와 수역자의 언어 환경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번역은 이 두 구별점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 번역은 성경 원 저자의 언어 환경과 현재 독자의 환경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방향 읽기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 성경 읽기 과정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의 의도와 사상을 잘 이해하게 하는 일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면에서 성경 번역은 대화로서의 성경 읽기 과정에서 저자의 정보를 독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소고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번역이 가지는 두 가지 역할 중, 두 번째 것에 집중해서 다루려 한다. 특별히 헬라어 접속사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자의 정보 전달과 헬라어 접속사의 역할을 고려한 후, 현재 우리말 성경에서 보이는 접속사 사용을 짧게 진단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려 한다.

## 2. 주제 전달과 헬라어 접속사의 기능

성경 본문을 통한 저자의 정보는 크게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통해 전달된다. 수평적 차원이란 본문이 가지는 선(線)적 배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성과 진행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sup>

연결성은 본문을 통한 정보가 의미론적(semantical), 구문론적(syntactical), 그리고 어용론적(pragmatical) 이음새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본문 정보의 이런 연결성은 주로 응집성(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을 통해서 전달된다. 응집성이란 단어, 구, 절, 그리고 문장 등의 본문 구성 요소가 다

1) 본문 정보의 특징과 헬라어 접속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졸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2010), 25-33, 43-44, 75-78을 참조.

른 요소들과 가지는 의미-문법적 연결을 말한다. 통일성이란 이런 응집성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혹은 논리적 일치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문 표현에 나타나는 문법적 연결성은 응집성에 해당되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등장인물들의 연속성, 시-공간적 연속성, 그리고 행위의 연속성 등은 통일성에 해당한다. 본문 정보는 이런 응집성과 통일성의 연결을 통해 구성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연속성과 관련된 본문 정보의 또 다른 특징은 전달되는 정보는 무의미한 여러 요소들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오가는 정보는 그 내용에 있어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 가는 일련의 진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의 장르에서 이런 진행성은 대개 시-공간적 순서를 따라 움직이며, 비 서사 장르에서는 주로 논리적 혹은 주제적 관계들을 따라 진행한다.

한편, 본문의 정보는 수평적 차원과 함께 수직적 정보 구조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문의 모든 정보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정보의 논리적 상하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하구조는 ‘핵심-주변’이나 ‘머리-꼬리’ 등의 논리적 서열관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구조는 문장 단위 내에서뿐 아니라, 그 이상의 언어학적 단위에서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머리’나 ‘핵심’ 부분이 ‘꼬리’나 ‘주변’보다 중요하다. 이런 논리 구조 외에도 현저성(prominence)을 포함한 다양한 강조 방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정보가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성경 저자는 이러한 전달 구조를 가진 본문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 중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접속사이다. 신약성서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접속사는 여러 기능을 한다. 본문의 수평적 정보 이동 차원에서 보면 접속사는 여러 문법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의미-문법적 응집성과 논리적 통일성을 드러내 준다. 또한 내용의 연속성(예, *καί*)과 불연속성(예, *δέ*)을 지시해 줌으로써 본문 진행성에 대한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한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이런 기능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주제의 범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의 내적 통일성과 논리 구조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자의 생각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본문 정보의 수직적 차원과 관련해서 접속사는 논리의 상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특히 인과접속사들은 ‘꼬리’로서 머리를 보강하거나(예, *γάρ*: “왜냐하면”) 논리적 ‘머리’ 부분임을 표시함으로써(예, *οὖν*: “그러므로”)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중요도의 상하 관계를 분

명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접속사의 이런 기능은 논리적 주제 전달을 위주로 하는 서신 장르에서 저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결론적으로 접속사는 저자의 정보 전달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접속사는 저자의 정보와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열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접속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 3. 우리말 성경(『개역개정』)의 접속사 사용의 예

성경 대부분의 경우 접속사 번역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해서 벌어지는 아쉬움도 있다. 이제 접속사에 대한 몇 가지 단면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 3.1. 적절치 않은 번역의 예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접속사를 바르게 번역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용 이해에 혼동을 주는 경우이다. 그 한 예는 고린도전서 13:13에 나오는  $\nu\upsilon\iota\ \delta\grave{\epsilon}$  표현이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그러즉”으로 번역한다. 이 번역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3:13은 이전에 설명된 부분의 논리적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바른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8-12에서 사용한 논증 형태와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4-7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8부터 여러 은사들과 구별되는 사랑의 우월성을 설명한다. 그는 사랑의 우월성을 그것이 갖고 있는 ‘영원성’에 근거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완전함의 대조를 논증의 기본 틀로 사용한다.

현재와 미래의 대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먼저 이런 대조는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들의 기능적 한계성을 부각시켜 준다. 바울은 현재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은사에 대해 ‘부분적’이라고 평가하고(고전 13:9), 장차 주님이 오실 때는 온전한 것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고전 13:10). 그렇기에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은 그것이 어떤 수준이든 장차 있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아는 지식에 비하면 마치 청동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전 13:12).

현재와 미래의 대조가 보여주는 또다른 측면은 은사의 시간적 한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8-9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 등의 은사들은 시간적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없어질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마치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생각이 어른이 되어 장성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고전 13:11), 은사들 역시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은사들은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사랑은 다르다. 비록 현재의 불완전성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은사들과 달리 사랑은 관계적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사랑은 기본적으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래에는 더욱 온전해지는 속성을 지닌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마치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한 형태이지만, 그 때가 되면 더욱 온전한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처럼 말이다(고전 13:12).

이러한 시간 대조 속에 나타난 사랑의 우월성은 고린도전서 13:13을 “그러나”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만일 고린도전서 13:13을 13:12의 논리적 결론으로 보면, 사랑의 영원성의 결과로 믿음과 소망 역시 영원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전서 13:13의 현재시제 동사 μένει를 “항상 있다”로 번역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고린도전서 13:13하반에서 사랑이 다른 두 덕목보다 뛰어나다는 표현과 상충된다. 그렇기에 *vovi δε*를 품고 있는 고린도전서 13:13상반은 13:12까지 내용의 반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고린도전서 13:7에서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연결되어 설명되지만, 이 항목들은 은사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대조 속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소망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소망은 성취된다. 그 결과 소망 그 자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기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13상반의 *vovi δε*는 13:12의 미래 상태와 반대되는 현재 상태로의 초점 전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럴 때, 다른 두 덕목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3:13하반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상의 예에서 보면,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독자는 저자의 의도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접속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 3.2. 접속사 생략에 의한 의미 전달력 약화의 예

접속사와 관련해 살펴볼 두 번째 예는 접속사 생략으로 인해 저자의 의도 전달이 약화된 경우이다. 그 한 예는 접속사 γάρ(“왜냐하면”)가 사용된 로마서 1:16-17이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부분은 세 개의 γάρ가 직설법 정동사를 가진 세 개의 절을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1)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롬 1:16상); (2)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롬 1:16하); (3)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롬 1:17상). 인과접속사를 통한 이런 연결 구조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듯하다. 첫째는 로마서 1:15-17의 내용 연결의 진행성이다. 로마서 1:16상반은 로마서 1:15에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를 전달한다. 즉,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도 그것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16하반은 자신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7상반은 로마서 1:16하반과 연결해서 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과접속사를 통한 연결은 독자로 하여금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적 진행성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도록 돕는다.

γάρ를 통한 연결 구조에 반영된 저자의 두 번째 의도는 독자로 하여금 연결 진행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 그 자체로 관심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γάρ가 로마서 1:15와 연결해서 ‘나’라는 바울의 관심과 복음을 소개한 것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접속사 사용은 ‘나’와 독자에서 복음과 독자로 관심을 옮겨가게 한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로마서 1:18부터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신의 본론으로 이동한다. 결국, 저자 바울은 인과접속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편지의 중심 내용인 복음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런 역할의 인과접속사를 제대로 살려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개역개정』이 로마서 1:16상반과 하반을 “...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헬라어 원문이 보여주는 연결성과 진행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의도를 담아내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따라서 접속사를 통한 저자의 의미 전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접속사 생략으로 본문의 의미 전달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예는 로마서 3:21에 나온다. 로마서 3:21은 3:20까지 언급된 인간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전을 담고 있으며 바울은 이것을  $\nu\upsilon\iota\ \delta\epsilon$ 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조의 접속사  $\delta\epsilon$ (“그러나”)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은 많은 경우 이전 구절과 현재 말하고자 하는 구절 사이의 대조를 통한 주제 전개와 발전을 피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그렇기에 바울의 선택은 로마서 3:20과 3:21 사이의 분명한 단절을 나름대로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로마서 3:21은 인간의 죄인 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끝내고 예수로 인한 구원 설명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선택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delta\epsilon$ 의 의미를 생략한 『개역개정』의 “이제는”은 바울이 전하려는 주제의 대조와 발전의 측면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다. 바울이 피하려는 정죄와 구원 사이의 강한 반전을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번역이다.

이상에서 보듯 성경 기자는 접속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강조를 전달하기에 그것을 생략한다면 독자를 향한 저자의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접속사를 반드시 다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생략함의 과정은 신중해야 하고 문맥적 사고 흐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3. 일관성 문제의 예

접속사와 관련된 세 번째 예는 일관성 없는 번역의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기에 같은 접속사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하지만, 동일 기능을 하는 한 접속사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정보를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앞서 언급한  $\nu\upsilon\iota\ \delta\epsilon$ 의 번역은 신약성경에서 총 열일곱 번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6:22에서 죄의 종이었던 신자의 이전 삶의 모습(21절)과 대조되는 현재 상태를  $\nu\upsilon\iota\ \delta\epsilon$ 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한 『개역개정』은 바울이 전하려는 대조와 발전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일관성은 없다. 그 예가 위에서 언급한 고린도전서 13:13과 로마서 3:21이다. 동일한 표현과 대조의 환경이 있음에도 “그러나”를 생략한 채 번역하고 있다. 실제로 로마서 6:22; 고린도전서 12:18; 15:20; 히브리서 8:6을 제외한 바울 서신의 나머지 경우(롬

3:21; 7:6, 17; 15:25; 고전 13:13; 고후 8:11, 22; 엡 2:13; 골 1:22; 3:8; 몬 1:9, 11)는 “그러나”를 살려 번역하지 않았다. 히브리서의 경우 8:6은 “그러나”를 살려 번역했지만, 9:26은 생략해 버렸다. 더 나아가 빌레몬 1:9는  $\nu\upsilon\iota\ \delta\epsilon$ 를 연이어 나오는  $\kappa\alpha\iota$ 로 인해 “지금 또”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일관성 없는 번역은 그 표현을 통한 저자의 의도와 정보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3.4. 적절한 번역이 해석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예

접속사와 관련한 네 번째 예는 올바른 번역이 본문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좋은 예는 로마서 2:1에 나온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1:18-32의 대상은 이방인이고 로마서 2:1은 유대인으로 본다. 이런 견해의 여러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약점 중의 하나는 로마서 2:1의 접속사  $\delta\iota\acute{o}$ 이다.<sup>2)</sup>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강조가 있는 논리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sup>3)</sup> 우리말 성경도 “그러므로”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이 접속사에 의하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1-5는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닌 동일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만일 일반적으로 보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독특한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한 **결과**로 로마서 2:1에서 ‘너’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역시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동일 대상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에서 삼인칭으로 일반적 설명을 하고 그 결과로 로마서 2:1에서 이인칭 ‘너’라고 불리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동일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하지만, 다른 대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delta\iota\acute{o}$ 가 가지는 이런 함의가 자신들의 해석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의미 없는 것으로 폄하하거나, 후대의 삽입으로 처리하곤 한다. 아니면 이 접속사의 정상적인 의미 대신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거나 그 보편적 기능을 무시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의 결과를 미리 썼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저자가 본문을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본문 접속사의 의미와 그 기능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sup>4)</sup> 이런 면에서 로마서 2:1의  $\delta\iota\acute{o}$ 는 저자의 논리 전개를 드러내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e, *Paul's Gospel in Romans*, 131-134, 135-137.

3)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89), 1:781.

4) 최근에 이한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서울: 이레서원, 2008), 223 n. 309에서 자신의 이전의 견해를 접속사  $\delta\iota\acute{o}$  해석으로 인해 바뀐 것은 의미 있는 예일 것이다.

는 접속사가 본문 해석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일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본문의 정보와 자신의 해석적 견해 중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적절한 번역의 중요성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 4. 결론 및 제언

언어 대화 과정으로 성경 읽기를 본다면, 독자인 신자의 일차적 의무는 성경 저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는 성경 저자가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방법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의 정보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헬라어 접속사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저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흐름과 관련해, 접속사는 전달되는 정보의 주제 범위를 표시하여 보다 큰 단위의 정보 구조 구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각각의 주제 범위 안에 있는 정보의 내적 통일성과 논리 구조를 구성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접속사는 정보의 중요도를 논리적 상하 관계를 통해 전달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저자가 접속사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저자의 전달 방법을 잘 인식하여 전해진 정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와 독자의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 번역은 저자의 전달 방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 주어 독자로 하여금 저자의 정보를 잘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예들을 중심으로 번역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첫째, 가능하다면 접속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논리적 주제 전달을 우선시 하는 서신서들의 경우는 독자들로 하여금 논리적 상하 관계를 알려주는 접속사를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때때로 그것이 매끄러운 번역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저자의 정보 이해를 위해서는 따로 표기를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둘째, 접속사 번역시 각 문맥 속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민감하게 고려해 번역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법적 연결 기능뿐만 아니라, 주제 정보 전달과 관련한 각 부분의 위치와 관계에 대한 접속사의 역할 고려를 포함한다.

셋째, 동일 환경에서 동일 기능을 하는 접속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관

성 있는 번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자의 정보 전달에 충실해야 하는 번역의 한 의무로 사료된다.

시대와 문화 환경, 그리고 특별히 언어 환경의 변화는 성경 번역의 적절성을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 성경 본래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떤 어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 헬라어 접속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번역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에 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저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 성경 번역의 한 원칙이라면, 헬라어 접속사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그러한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투고 일자: 2012. 10. 10.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